生活科學硏究 第28輯 2018.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8, 2018, pp.1-19

#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도가(道家)와 유가(儒家)의 경전에 언급된 물의 이용과 철학

홍 윤 호

전남대학교 식품영양과학부 명예교수

# Utilization and Philosophy of Water Described in the Scriptures of Daojia and Rujia During the Spring, Autumn and Warring Periods in China

**Youn-Ho Hong**

*Emeritus Professor, Division of Food and Nutri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utilization and philosophy of water mentioned in the scriptures of Daojia and Rujia in China and describes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Daojia and Rujia have been developed by establishing a philosophical system centering on Laozi and Confucius respectively. The conclusions of comparing the contents of the literature in terms of water utilization and philosophy in the two schools are as follows. In Daojia, the natural characteristics of water are compared to the human mind, claiming that water is essential to life and although looks weak but has strong sides. In Daojia, the water is praised as a symbol of high morality, benefiting the surroundings and humbly falling to the lower ground to yield and not fight. Therefore, people emphasized that it was desirable to resemble the good points of water and to lead a peaceful life with their neighbors. In Daojia, people are inspired to harmonize with the nature and accord with the flow of nature. Daojia encouraged the life of hermit who pursues the true path, maintaining the purely empty state of heart like water and having natural character. Daojia also emphasizes the absolute and idealistic philosophy of virtue, which carries the peace of nature without greed and artificial restraints. Rujia sympathizes with a full and continuous flow of water, giving the physiological importance and emotional significance to life forms. In Rujia, the good points of water are expressed by such as veneration, righteousness, dignity, courage, exemplar, justice, insight, good deeds, and will. At Rujia, water is praised as having the clean and flexible elegance and virtue, by the term 'the wise man likes water'. It is emphasized that, as the water can flow constantly when the source of spring rises high, a person can study continuously and be fully self-disciplined and can continue to be a wise man. In Rujia, it is claimed that

논문접수일 : 2018. 12. 10., 심사완료일 : 2018. 12. 18., 게재확정일 : 2018. 12. 26.

like water or fire is essential to man, the four virtues of confucianism - compassion, justice, manner, and wisdom are essential to man. Rujia warned that if massive water is not handled well, it could cause catastrophic disasters. Therefore, it is advised to manage and utilize water rationally for proper drainage. I believe that Rujia emphasizes a pragmatic philosophy that people should accept social reality, trust in human possibility, and try to make a peaceful world. We can learn virtues such as the essentials of water emphasized in Doijia, goodness, tenderness, humility, strength, harmony with nature. We can also take as a lesson the philosophy of water, humanity, continuation, justice, good deeds and will that claim in Rujia. If we reflect these virtues and philosophies in our lives and politics, and practice rational use and management of water, we can enjoy happier, safer and peaceful lives together.

Key words: Water, Utilization, Philosophy, Daojia(Daoist), Rujia(Confucian)

# Ⅰ. 서 론

중국 철학사상에서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도가(道家)와 유가(儒家)는 춘추시대(771-403 BC)부터 시작되어 전국시대(戰國時代, 403-221 BC)에 걸쳐 제자백가(諸子百家)들로 학문의 중흥기를 이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 등, 2014; 박, 2015). 춘추시대에 살았던 공자의 언행이 기록된 「논어(論語)」와 전국시대에 활동했던 맹자의 말과 글이 기록된 「맹자(孟子)」에 언급된 문화 중 음식문화에 관하여는 이미 「생활과학연구」지에 발표되었다(홍, 2016: 2017).

물은 모든 생명의 발생과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 물은 농사, 가축, 원예, 수산업, 에너지 산업, 관광 등에도 중요한 자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물은 홍수, 산사태, 눈사태, 하천 범람, 해일, 쓰나미 등의 자연 재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물을 합리적으로 다스리는 일(치수, 治水)도 중요하므로 예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물은 또한 신비로움, 아름다움, 두려움 등으로 인간의 정서를 자극하고 철학,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 소재와 배경으로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홍, 2010).

물에 관련된 춘추, 전국시대의 경전을 고찰한 문헌은 알란(1999)의 단행본, 이(2012)의 논문 등으로 매우 희귀한 편이다. 게다가 이 문헌들은 공자, 노자, 장자에 한정되어 단편적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도가와 유가의 대표적 철학을 비교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춘추, 전국시대에 활동하였던 도가와 유가의 삼대 학자들의 경전에 서술된 물의 이용과 철학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관련 문헌을 참고로 하여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역사서에 도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노자(老子, Laozi, Lao-Tzu, Lao-Tze, 570-479 BC ?)의 출생과 사망 시기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따르면, '노자는 유가의 원조라고 하는 공자(孔子, Confucius, Kongzi, 551-479 BC)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나이가 공자보다 많고 예(禮)에 밝아 공자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공자에 의해 용(龍)과 같다는 칭송을 받았다'(사마천, 2015; 권, 2017)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도가, 유가 순으로 기술하였다.

# Ⅱ. 본 론

## 1. 도가(道家, Daojia, Taojia, Daoist, Taoist)의 특징

도가는 노자와 장자(莊子, Zhuangzi, Zhuangzhou, 369-286 BC)의 사상(노장사상, 老莊思想)을 계승, 발전시킨 철학자와 추종자 집단을 말한다. 춘추 전국시대의 대표적 도가 철학자는 노자, 장자, 열자이다. 노자는 중국의 춘추시대(春秋時代, 771-403 BC) 초(楚)나라 고현(苦縣)에서 태어난 사상가로 본명은 이이(李耳)이며 자는 담(聃)이다. 노자의 어록을 기록한 서적이 「도덕경(道德經)」이다. 열자(列子, Liezi, Lieh-tzu)는 열어구(列

禦寇, 450-375 BC)를 존중하여 부른 호칭으로 성(姓)은 열(列)이고 이름은 어구(禦寇 또는 圉寇, 圄寇)라고 불렸던 춘추말기~전국초기 시대의 정(鄭)나라 사람이다. 열자의 어록이 「열자(列子)」에 전해지고 있다. 장자는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 403-221 BC)에 송(宋)나라 몽현(蒙縣)에서 태어난 사상가로 이름은 주(周)로 알려져 있다. 장자의 어록이 「장자(莊子)」에  기록되어 전승되고 있다.

「열자(列子)」의 해설서에 따르면, "노자는 깨달은 사람이 체험하는 실재(reality)에 대해 말하고, 열자는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lives)을 솔직히 드러내 보여주며, 장자는 깨달은 사람이 도달해 있는 마음(mind)의 상태에 대하여 언급한다." 라고 대표 도가 철학자들의 특이한 점들을 기술하였다(정, 2001).

도가에서는 허무(虛無), 염담(恬淡),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설을 받드는 학파로 구성되어 만물의 근원으로서 자연을 숭배하였다. 도가 철학은 회의(懷疑), 부정(否定), 풍자(諷刺), 비판(批判) 등이 소극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현실세계의 모순들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주체로 어우러지는 참 평등의 대화해(大和諧)를 이루기 위해, 이를 가로막는 시회제도와 허위의식들을 부정하고 비판했다. 도가에서는 심성 또는 정신을 기르는 양생론(養生論)을 전통적으로 주장하였다(김 등, 2014). 도가에서는 노자, 열자, 장자 등에 따라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인위적인 것들을 버리고 절대적 개념이나 가치관을 가져야 비로소 모든 것을 얻게 되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남, 2001).

## 2. 유가(儒家, Rujia, Confucian)의 특징

유가는 공자의 학설과 학풍을 신봉하고 연구하는 학자나 학파를 일컫는다. 춘추 전국시대의 대표적 유가 철학자는 공자, 맹자, 순자이다. 유가의 중심 주제는 공자의 「논어(論語)」를 바탕으로 강조한 도덕적 인간이었다. 유가에서는 개인적 이욕(利慾)으로부터의 자유를 목표로 하고 공동체의 이욕을 다 채워주는 대동(大同) 사회를 통해 인간답게 살려는 목표를 실현하려 했다(김 등, 2014). 공자보다 약 100여년 뒤에 추(鄒)나라에서 탄생한 전국시대의 맹자(孟子, Mencius, Mengzi, 372-289 BC)는 공자의 인의예지(仁義禮智 ) 철학을 사숙(私塾)하여 더욱 확장시키고 인정(仁政), 성선설(性善說)과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주장하였다. 맹자의 어록이 『맹자』에 기록되어 있다. 맹자보다 약 70여년 후에 조(趙)나라에서 탄생한 전국시대의 순자(荀子, Xunzi, 298-238 BC)는 유물론적 경향의 철학자로서 그 어록이「순자(荀子)」에 기록되어 전해진다. 순자는 군거화일(群居和一), 예치(禮治), 도리(道理), 성악설(性惡說) 등을 강조하였다. 유가에서는 마음 또는 정신을 닦는 심성수양론(心性修養論)을 주장하였다. 유가에서는 사회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상적인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공부를 통한 자기 수양, 사회 규범과 질서를 따르는 덕을 많이 쌓고 실천해야 군자(君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유가에서는 인간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사회를 개선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강조하였다(김 등, 2014).

## 3. 도가(道家)에서의 물의 이용과 철학

도가의 경전인 노자의「도덕경(道德經)」총 81장에는 물에 관한 언급이 자주 서술되어 있다. 도덕경 제4장에서는 도(道)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도는 빈 그릇이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도를 퍼내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언제나 넘치는 일이 없다. 도는 깊고 원대해서 천지만물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그 예리한 것을 꺽고, 어지러운 것을 풀며, 그 광선을 부드럽게 하여 티끌과도 함께 하건만, 그 맑음이 항상 그대로 존재한다(道, 沖而用之, 或不盈, 淵兮似萬物之宗, 挫其銳, 解其紛, 和其光, 同其塵, 湛兮似或存.)". 이 장에서 노자는 도라는 것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가장 큰 그릇이며 아무리 퍼내어 사용해도 다함이 없고 부드러우며 원만하고 깨끗한 근원이라고 언급하였다.

「도덕경」 제8장에는 노자의 대표적인 명구(名句)라고 할 수 있는 상선약수(上善若水)가 언급되어 있다. "최상(最上)의 선(善)은 물과 같다. 물은 모든 생물에게 이로움을 주면서 다투지 않는다. 물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거처한다. 그러므로 물은 거의 도(道)에 가까운 것이다. 사람들이 사는 곳은 땅을 선택해야 하며, 마음은 생각이 깊어야 좋고, 사귀는 벗은 어진 사람을

골라야 한다. 말은 믿음성이 있어야 좋고, 정치는 다스려져야 좋으며, 일의 처리는 능숙해야 좋고, 행동은 때에 알맞아야 좋다. 그렇게 하면 다투지 않으며, 잘못됨이 없는 것이다(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居善地, 心善淵, 與善仁, 言善信, 正善治, 事善能, 動善時, 夫唯不爭, 故無尤.)". 이 장에서는 사람이 물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겸손하며 다투지 않는 것이 최상의 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도덕경」 제15장에는 "고대의 훌륭한 선비들의 태도는 마치 겨울에 발 벗고 냇물을 건너기를 머뭇거리는 것과 같고, 조심하는 모습은 마치 이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리번거리는 것처럼 보이며, 엄숙하고 의젓함은 손님과 같다. 융화함은 마치 얼음이 시원히 녹아 풀리는 것 같으며, 소박하기는 나무둥지 같고, 마음이 시원스럽게 트이기는 산골의 공동(空洞)과 같으며, 모든 것을 포용하여 혼동(混同)함은 탁류(濁流)와 같다. 누가 능히 탁류를 고요하게 정지시켜서 천천히 맑게 할 수 있겠는가?(古之善爲士者, 若冬涉川猶兮, 若畏四隣. 儼兮, 其若客, 渙兮, 若氷之將釋. 敦兮, 其若樸, 曠兮, 其若谷混兮, 其若獨孰能濁以靜之徐淸.)"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오직 도에 통한 상덕(上德)의 사람만이 혼탁한 세상과 온갖 욕망 속에서 능히 그들과 함께 하면서 물들지 않고 나아가서 그들을 정화(淨化)시켜 그들로 하여금 맑은 물처럼 도(道) 안에 생동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덕경」 제20장에서 노자는 "세상 사람들은 사리에 밝고 빈틈없이 잘 살필 줄 아는데, 나만은 홀로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기만 하네. 바다처럼 안정(安定)되고 고요하며, 끝없이 흘러가고 구속됨이 없구나(俗人昭昭, 我獨昏昏, 俗人察察, 我獨悶悶, 澹兮其若海, 飂兮若無止.)" 라고 언급하였다. 노자는 '세상 사람들과 큰 도(道)를 터득한 내가 다른 것은 나는 삶의 근본인 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다.

「도덕경」 제28장에는 "수컷처럼 강장(强壯)하고 능동적인 힘을 발휘할 줄 알고, 암컷처럼 유순한 겸허를 지킨다면, 모든 물이 저절로 모여드는 계곡같이, 천하의 인심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천하의 인심이 천하에 물이 모이듯 모여오게 된다면, 덕(德)은 항상 그에게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영아(嬰兒)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知其雄, 守其雌, 爲天下谿, 爲天下谿, 常德不離, 復歸於嬰兒.)" 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장에서 성인(聖人)은 강장할 수 있고 활동할 능력이 있으며 고요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닐 수 있다. 그러면 천하의 인심도 골짜기의 물처럼 모일 것이다. 그러한 도를 지키면 도의 작용이며 현상인 덕은 항상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영아의 상태와 같이 순수하고 욕심이 없으며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에 합치한다고 설명한다.

「도덕경」 제32장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비유하자면,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은 강과 바다의 냇물과 계곡에 대한 관계와 같은 것이다. 강이나 바다는 요구하지 않지만, 내와 계곡의 물들이 제대로 바다에 모이듯이 천하에 도를 행하는 자에게는 만물이 저절로 찾아온다(譬道之在天下, 猶川谷之於江海.)"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장에서 노자는 도를 행하는 성인에게는 천하의 인심이 저절로 그에게 돌아가서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잘 다스려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남, 2001).

「도덕경」 제36장에는 "부드럽고 약한 것이 모질고 강한 것을 이긴다. 강한 물고기는 부드러운 못물을 벗어나지 못한다(柔弱勝剛强, 魚不可脫於淵.)" 라고 서술되어 있다. 물은 부드럽고 유약하지만 천하에 물을 능히 이길 것은 없으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자주 물의 위대함을 칭송하였다. 물이 온갖 생명을 기르고 살려주듯이 성인은 부드럽고 약한 듯하나, 겸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덕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모로하시, 2001).

「도덕경」 제39장에서는 도(道)의 기능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다. "처음에 오직 하나인 것, 즉, 도를 얻은 자로서 하늘은 도를 얻어서 밝고, 땅은 도를 얻어서 편안하며, 신(神)은 도를 얻어서 영험(靈驗)하고, 계곡은 도를 얻어서 물이 채워지며, 만물은 도를 얻어서 생성하고, 군주(君主)는 도를 얻어서 천하의 바른 것이 되었다(昔之得一者, 天得一以淸, 地得一以寧, 神得一以靈, 谷得一以盈, 萬物得一以生, 侯王得一以爲天下貞, 其致之.)". 도를 얻으면 천지만물이 평화롭고, 인간의 삶도 정의로워진다는 것이다.

「도덕경」 제43장에서 노자는 "천하에 가장 부드러운 물이 가장 단단한 바위를 향하여 돌진하고, 형체도 없는

기(氣)는 빈틈이 없는 곳에도 침투한다. 그것에서 나는 무위(無爲)가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 말하지 않는 가르침과 작위(作爲)없는 유익함,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천하에 드물다(天下之至柔, 馳騁天下之至堅, 無有入無間, 吾是以知無爲之有益, 不言之敎, 無爲之益, 天下希及之.)" 라고 피력하며 아무것도 인위적인 것을 행하지 않는 무위가 인위적으로 행하는 유위(有爲)보다 더 좋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도덕경」 제60장에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 뒤흔들거나 조급하게 서둘지도 말고 가만히 두어야 한다. 도로써 천하를 다스리면 귀신도 신(神)의 힘을 나타내지 못한다(治大國, 若烹小鮮, 以道莅天下, 其鬼不神.)"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국가가 너무 번거롭게 간섭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두면서 백성을 안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도덕경」 제61장에서 노자는 "큰 나라는 강이나 바다 같은 것이어서 천하가 흘러 돌아가는 곳이다. 큰 나라는 천하의 암컷이다. 암컷은 항상 고요하게 있음으로써 수컷에게 이긴다. 수컷에게 이길 수 있는 고요함을 지닌 채 수컷의 아래가 된다. 그러므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겸허하게 저자세를 취하면 작은 나라가 거기에 붙게 되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겸허하게 저자세를 취하면 큰 나라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大國者下流, 天下之交, 天下之牝, 牝常以靜勝牡, 以靜爲下, 故大國以下小國, 則取小國, 小國以下大國, 則取大國.)" 라고 언급하였다. 노자는 언제나 물과 같이 고요한 것, 겸허한 것, 남의 아래에 처하는 것 등을 찬양하고 그것을 도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하였다(모로하시, 2001).

「도덕경」 제66장에서는 "물과 바다가 능히 모든 계곡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까닭은 강이나 바다가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능히 모든 계곡의 왕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백성의 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자신을 백성의 뒤에 둔다. 그런 까닭에 성인이 위에 있어도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있어도 백성들은 그가 방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그를 즐겨 추대하고 싫어하지 않는다. 그는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가 그와 더불어 다툴 수가 없다(江海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 故能爲百谷王, 是以欲上民, 必以言下之, 欲先民, 必以身後之, 是以聖人處上而民不重, 處前而民不害, 是以天下樂推而不厭, 以其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 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나라의 임금은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 아래에 처하며, 항상 자신을 뒤로 밀고 백성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조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다 같은 포용력으로 크고 작고, 맑고 흐린 것을 다 받아들이면 인심은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도덕경」 제67장에서 노자는 자신이 중요시 하는 보물 3가지를 소개하였다. "나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보존한다. 첫째는 자애(慈愛), 둘째는 검약(儉約), 셋째는 감히 천하보다 앞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비롭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다. 자애하면 군사들의 힘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약하기 때문에 능히 널리 베풀어 쓸 수 있다. 검약하면 모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히 천하보다 앞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천하의 훌륭한 그릇을 이루어 남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천하를 먼저 위하고 자신을 뒤로 돌리면, 천하의 인심이 그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我有三寶, 持而保之, 一曰慈, 二曰儉, 三曰不敢爲天下先, 慈故能勇, 儉故能廣, 不敢爲天下先, 故能成器長.)". 이런 노자의 겸허한 태도는 제 66장에서 언급된 내용을 부연하여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경」 제78장에는 "천하에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어떤 것도 물과 바꿀 만한 것이 없다. 약한 물이 강한 것들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모진 것을 이기는 것을 천하에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능히 자신에게 옮겨서 실천하지는 못한다(天下莫柔弱於水, 而功堅强者, 莫之能勝, 以其無以易之, 弱之勝强, 柔之勝剛, 天下莫不知, 莫能行.)"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장에서 노자는 유약한 물이 모질고 강한 것을 이긴다는 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약한 물이 강한 바위나 돌을 뚫을 수 있음을 자연에서 볼 수 있지 않은가!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하고 모든 욕된 것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물을 닮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실은 가장 존귀하고 강한 사람이라는 담론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도덕경」의 예문에서 노자는 무(無; 천지

만물의 근원(根源), 허(虛; 빈 것), 정(靜; 고요함), 유약(柔弱; 부드럽고 약한 것), 소박(素樸; 순수한 원형)을 높이 평가하였다(Freke, 1995). 그 중에서 노자는 유약한 것을 항상 찬양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물을 칭송하고 암컷(빈, 牝)을 칭찬하였다. 물은 부드럽고 약하게 보이지만 천하에 물보다 강한 것은 없다고 하였다(남, 2001). 물은 또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며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주고 낮은 곳으로 흘러 거처하므로 성인(聖人)이 갖추어야 하는 겸양(謙讓)의 미덕(美德)으로 칭송되어 왔던 것이다(홍, 2010).

「열자(列子)」는 정(鄭)나라의 열자, 즉 열어구(列禦寇)가 지었다고 전해진다. 이 「열자」는 도교에서 주요 경전의 하나로 존숭(尊崇)된다. 이 「열자」는 천서(天瑞), 황제(黃帝), 주목왕(周穆王), 중니(仲尼), 탕문(湯問), 역명(力命), 양주(楊朱), 설부(說符) 등 총 8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열자는 전설적인 도인(道人)으로 「열자(列子)」에는 도가사상뿐만 아니라 유가적 사상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화(寓話)에 가까운 글들이 많이 포함되어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읽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 2001). 「열자」의 양주(楊朱)편에는 "배를 삼킬만한 고기는 좁고 얕은 물에서 헤엄치지 않는다(吞舟之魚 不游枝流.)" 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심성이 깊고 큰 인물은 넓고 큰 곳에서 자라고 많은 체험을 하며 살면서 교류해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조언이라고 추정된다. 「열자」의 양주편에는 또한 "기러기와 고니는 높이 날아서 더러운 못에는 모이지 않는다(鴻鵠高飛 不集汚池.)" 라고 기술되어 있다. 열자는 사람도 높은 뜻을 세상에 펴려면,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모여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열자」의 설부편에는 공자가 위(衛)나라에서 노(魯)나라로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과 함께 거대한 폭포의 장관을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공자일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급류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러더니 유유히 헤엄쳐서 강 이쪽으로 건너왔다. 공자가 자기가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었다. "'나는 당신처럼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소. 묘법이나 도술이라도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급류에서 어떻게 헤엄을 칠 수 있는 것입니까?'. 강을 건너온 사내가 말했다.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물속에 있을 때 물과 싸우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제 힘이나 기술로 헤엄을 치지 않습니다. 물을 믿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길 뿐이지요. 물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그 흐름에 따라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할 뿐이지요. 저는 물을 믿고 물에 몸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강과 친구가 되었고, 그래서 강은 저를 해치지 않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 이 말을 잘 기억해 두라.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강과도 친구가 될 수 있거늘, 사람 사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孔子問之曰 巧乎 有道術乎 所以能入而出者何也 丈夫對曰 始吾之入也, 先以忠信 及吾之出也, 又從以忠信. 忠信錯吾軀於波流, 而吾不敢用私, 所以能入而復出者, 以此也. 孔子謂弟子曰 二三子識之 水且猶可以忠信誠身親之, 而況人乎.)" 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편에서는 열자가 공자의 사람의 신뢰가 중요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의 행동은 물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면 급류에서도 물과 친구가 되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의 철학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열자」의 설부편에는 또한 초(楚)나라 평(平)임금의 손자이며 이름은 백승(白勝)으로 알려진 백공(白公)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던 중, 공자를 찾아가서 물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비밀을 말하면 그 비밀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공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백공이 다시 물었다. '만약 돌을 연못에 던지면 연못 속에 그 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사람이 있을까요?' 공자가 대답했다. '아마 잠수를 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돌을 건져낼 것입니다.' 백공이 다시 물었다. '두 강물에서 떠온 물을 섞어 놓으면 그것이 두 강물에서 떠온 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자가 대답했다.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백공이 또 물었다. 그렇다면 비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군요.' 공자가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왜 있을 수 없겠습니까? 물론 말을 하면 비밀이 지켜지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비밀이 지켜지겠지요. 비밀은 말을 적게 할수록 적게 드러나고 많이 할수록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밀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것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얻으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백공은 공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돌아갔다. 백공이 꾸민 음모는 얼마 후 노출되었고, 그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반대파 사람이 보낸 자객에게 살해되었다(白公問孔子曰 人可與微言乎 孔子不應. 白公問曰 若以石投水何如 孔子曰 吳之善沒者能取之. 曰 若以水投水何如 孔子曰 淄澠之合, 易牙嘗而知之. 白公曰 人故不可與微言乎. 孔子曰 何爲不可 唯知言之謂者乎夫知言之謂者, 不以言言也. 爭魚者濡, 逐獸者趨, 非樂之也. 故至言去言, 至爲無爲. 夫淺知之所爭者, 末矣. 白公不得已, 遂死於浴室.)" 라고 기술되어 있다. 열자는 공자와 백공의 일화를 빌어 비밀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하지 않는 것이며, 현자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 물처럼 투명하고 바르게 처세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정, 2001).

열자는 도가적 우주론을 노자 이상으로 깊게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우주를 통해 흐르고 있는 우주적인 법칙을 좇아 사는 것이 인간의 진실한 삶의 방법이라고 했다. 열자는 맑고 텅 빈 마음(淸虛)의 상태를 유지하고, 무위(無爲)를 숭상하며, 자연스러운 품성을 지니고 참된 도(道)를 추구하는 은자(隱者)의 삶을 권장하였다(김, 2010).

장자의 저서로 알려진 「장자(莊子)」에서 소요유(逍遙遊), 제물론(齊物論), 양생주(養生主), 인간세(人間世), 덕충부(德充符), 대종사(大宗師), 응제왕(應帝王) 등 내편(內篇) 7편을 중심으로 물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본다.

「장자」의 제1편 소요유(逍遙遊) 제1장에 "북쪽 바다에 고기가 있어 그 이름을 곤(鯤)이라 한다, 곤의 크기는 몇천 리인지 헤아릴 수가 없다. 그것이 홀연히 변해 새가 되니 그 이름을 붕(鵬)이라 한다. 붕의 등은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기운을 내어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도 같다. 이 새는 바다가 뒤끓어 파도가 일면 남쪽 바다로 옮겨 간다. 이 남쪽 바다는 천지라고 한다. 제해(齊諧)는 이 세상의 이상한 것들을 적어 놓은 책이다. 이 책에 이르기를 '붕이 남쪽 바다로 옮길 때에는 물 삼천리를 치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리 높이까지 솟아오른다. 이렇게 여섯 달을 난 뒤에야 남쪽 나라에 이르러 쉰다(北冥有魚, 其名爲鯤. 鯤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 齊諧者, 志怪者也. 諧之言曰 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摶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 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 장에는 신화적인 표현이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 여겨지나, 장자는 대붕(大鵬)을 등장시켜 세속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지인(至人)의 넓은 바다와 활기찬 바람을 타는 대범한 경지를 그려내었다. 지인은 사물의 겉모습에 구애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는 저 하늘 구만리까지 날아오르는 상상 속의 큰 새처럼 활달한 도량으로 살아가는 것이다(김, 1999).

「장자」의 제1편 소요유 제2장에서 장자는 "물이 얕으면 큰 배를 띄울 만한 힘을 지니지 못한다. 물 한 잔을 마당의 패인 곳에 부으면 겨자씨는 띄울 수 있지만, 거기에 잔을 놓으면 가라앉고 만다. 이는 물은 얕고 배는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바람이 약하면 붕새의 큰 날개를 펴서 날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구만리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비로소 날개를 지탱할 바람이 아래에서 일게 된다. 그때라야 붕새는 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을 등에 업으며 마음대로 남쪽 바다를 향해 날아 갈 수가 있는 것이다(且夫水之積也不厚, 則其負大舟也無方. 覆杯水於坳堂之上, 則芥爲之舟, 置杯焉則膠, 水淺而舟大也. 風之積也不厚, 則其負大翼也無力. 故九萬里, 則風斯在下矣, 而後乃今培風, 背負靑天而莫之夭閼者, 而後乃今將圖南)." 라고 피력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은 만물의 온갖 차별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탕의 동질성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시야를 넓히면 만물에 대한 일체의 차별적인 관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이 곧 장자의 만물제동(萬物齊同) 경지라고 칭한다(김. 1999). 이런 경지는 얕은 물보다는 넓은 바다 같은 큰 배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보인다.

「장자」의 제1편 소요유 제5장에는 "탕왕(湯王)이 극(棘)에게 물었던 것도 이와 같은 것이었다. 궁발(窮髮)의 북쪽에 어두운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곧 천지이다. 거기에 고기가 살고 있는 바, 그 등 너비는 수 천리에 이르고, 그 길이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곤이다. 또한 거기에 새가 살고 있어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그 크기는 태산과 같고 날개는 하늘을 덮은 구름과도 같다. 이 붕새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상공에 오르기를 구만리, 구름을 뚫고 푸른 하늘을 등에 업고서

남쪽 바다를 향해 떠나려고 했다. 바로 이 모습을 본 종달새가 비웃었다. '저 새는 도대체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우리는 기껏 뛰어올라 봐야 몇 길도 오르지 못해 땅바닥에 주저앉고 만다. 그래서 겨우 쑥대밭 사이로 돌아다닐 뿐이다. 이것만으로도 역시 날아다니는 새인데, 저 녀석은 도대체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난다(湯之問棘也是已 湯問棘曰 上下四方有極乎 棘曰 無極之外, 復無極也. 窮髮之北有冥海者, 天池也. 有魚焉, 其廣數千里, 未有知其修者, 其名爲鯤. 有鳥焉, 其名爲鵬, 背若太山, 翼若垂天之雲, 搏扶搖羊角而上者九萬里, 絕雲氣, 負青天, 然後圖南, 且適南冥也. 斥鴳笑之曰 彼且奚適也 我騰躍而上, 不過數仞而下, 翱翔蓬蒿之間,此亦飛之至也. 而彼且奚適也 此小大之辯也.)" 라고 기술되어 있다. 소요유 제1, 2, 5장에서와 같이 이 장에서도 장자는 종달새에 비유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큰 바다에 사는 곤과 붕새에 비유한 장자 자신이 원대하며 활달하고 자유분방함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장자」의 제1편 소요유 제10장에는 "송나라 사람이 의식에 쓰는 관(冠)을 팔려고 월(越)나라에 갔다. 그런데 월나라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짧게 하고 몸에 문신을 하였기 때문에 선비가 쓰는 관이 필요 없었다. 요(堯)임금은 천하의 백성을 다스리고 국내의 정사를 안정시킨 후, 묘고야산에 살고 있는 신인(神人)을 만나 보았다. 그 뒤 그는 분수(汾水)가에 돌아와 멍하니 세상일을 잊게 되었다고 한다(焉宋人資章甫而適諸越, 越人斷髮文身, 无所用之. 堯治天下之民, 平海內之政, 往見四子邈姑射之山, 汾水之陽, 窅然喪其天下.)" 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무위의 세계에 노니는 신인(神人)들에게는 요임금의 바르고 좋은 정치도 별다른 의미가 없는 셈이다. 오히려 이들이 세속에 대한 초월적인 자세에 깊이 감동한 요임금은 궁궐로 돌아온 후 얼빠진 사람처럼 세상일을 잊게 되었다고 한다. 이 꾸며낸 이야기는 유가에서 숭상하는 요, 순(舜)임금 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유가의 인위적인 노력에 의한 선정(善政) 보다는 모든 일을 자연의 섭리에 맡겨야 한다는 장자의 지론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2012)에 따르면,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형태가 없으며 조용하고 깨끗하므로 장자의 얽매임 없는 절대적인 자유속의 소요를 견인하는 삶의 모델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자」의 제2편 제물론(齊物論) 제21장에는 "설결(齧缺)이 물었다. '선생은 이해(利害)를 가릴 수 없다고 하시는데, 지인(至人)은 본디 이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왕예(王倪)가 대답하였다. '지인은 신비한 존재다. 큰 연못을 태우는 불길도 그를 뜨겁게 하지 못하고, 황하의 한수(漢水)를 얼어붙게 하는 강추위도 그를 춥게 하지는 못한다. 또한 격렬한 우뢰가 산을 쪼개고 큰 바람이 바다를 뒤흔들어도 그를 놀라게 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지인은 구름을 타고 해와 달에 올라 앉아 이 세상 밖에서 노닌다. 죽음과 삶도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거늘 하물며 하찮은 이해에 얽매이겠는가?(齧缺曰 子不知利害, 則至人固不知利害乎, 王倪曰 至人神矣 大澤焚而不能熱, 河、漢沍而不能寒, 疾雷破山、風振海而不能驚。若然者, 乘雲氣, 騎日月, 而遊乎四海之. 死生无變於己, 而況利害之端乎.)"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장은 일체의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지인의 심경을 피력한 것이다. 장자는 세속적인 이해득실에는 관심이 없으며 죽고 사는 문제조차 초월하고 있다. 이는 마치 불타(佛陀)의 해탈(解脫)처럼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편안한 경지를 뜻하는 것이다(김, 1999).

「장자」의 제3편 양생주(養生主) 제4장에서 장자는 "못가의 꿩은 열 걸음에 한 입 쪼아먹고, 백 걸음에 한 모금 마시지만, 세상 속에 갇혀서 길러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비록 기운은 날지 몰라도 마음이 즐겁지 않기 때문이다(澤雉十步一啄, 百步一食, 不蘄畜乎樊中. 神雖王, 不善也.)" 라고 언급하였다. 이 장에서는 자연 속에서 구김살 없이 살아가는 들짐승의 모습을 통해 양생(養生)이란 속박받지 않는 삶임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장자」의 제5편 덕충부(德充符) 제2장에는 "사람은 흐르는 물에 자신을 비쳐보지 않고 멈춰 있는 물에 비쳐본다. 이처럼 멈춰 있는 것만이 능히 다른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땅에서 난 식물 중에 오직 송백만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푸르다. 하늘에서 생명을 받은 이 중에 오직 순임금만이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다. 무릇 도의 근원을 제대로 체득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人莫鑑於流水, 而鑑於止水, 唯止能止衆止. 受命於地, 唯松柏獨也正, 在冬夏青青. 受命於天, 唯堯舜獨也正, 在萬物之首. 幸能正生, 而正衆生. 夫保始之徵, 不懼之實.)" 라고 서

술되어 있다. 장자는 지식에 의한 차별의식과 분별을 떨쳐버리면, 모든 사물이 하나로 보이게 된다고 한다. 이것이 곧 만물제동 사상이다. 장자는 우리의 육신이 잠시 머무는 거처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와 같은 이치를 제대로 인식한 사람은 감각적인 쾌락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장자」의 제6편 대종사(大宗師) 제2장에는 "어떤 사람을 진인(眞人)이라 이르는가? 옛날의 진인은 거스르지 않고, 성공을 뽐내지 않으며, 일을 일부러 꾀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비록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며, 일이 뜻대로 되어도 만족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도 떨지 않으며,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워하지 않았다. 이는 그 지혜가 능히 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옛날의 진인은 잠을 자도 꿈꾸지 않으며, 깨어 있어도 마음에 걱정이 없었다. 또한 음식은 단 것을 찾지 않고, 그 호흡은 깊었다. 진인은 발뒤꿈치로 숨을 쉬지만, 뭇사람들은 기껏 목구멍으로 숨을 쉴 뿐이다. 바깥 사물에 굴복한 사람의 목소리는 신음하는 것과 같고, 욕심이 지나친 사람은 그 정신의 작용이 얕다(何謂眞人 古之眞人, 不逆寡, 不雄成, 不謨士. 若然者, 過而弗悔, 當而不自得也. 若然者, 登高不慄, 入水不濡, 入火不熱. 是知之能登假於道者也若此. 古之眞人, 其寢不夢, 其覺無憂, 其食不甘, 其息深深. 眞人之息以踵, 衆人之息以喉. 屈服者, 其嗌言若哇. 其耆欲深者, 其天機淺.)" 라고 기술되어 있다. 장자는 지혜가 도(道)에 이르면 진인으로서 작은 일들의 성패에 연연하지 않으며 초연(超然)하여 당당하며 평안해진다고 설파하였다.

「장자」의 제6편 대종사(大宗師) 제7장에는 "연못이 말라붙으면 물고기들은 진흙 위에서 서로 물기를 뿜어내고 거품으로 적신다. 그러나 그보다는 넓은 강 또는 호수에서 서로를 잊고 사는 것이 훨씬 편안하다. 세상 사람들은 요임금을 찬양하고 걸왕을 비난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양쪽을 모두 잊고 도를 따라 사는 것이 훨씬 편안하다. 무릇 대자연은 나에게 몸을 주고, 삶을 주어 애쓰게 하며, 늙음을 주어 편안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휴식케 한다. 따라서 자기의 삶을 좋다고 여긴다면, 자기의 죽음도 좋다고 여겨야 할 것이다(泉涸, 魚相與處於陸, 相呴以濕, 相濡以沫, 不如相忘於江湖, 與其譽堯而非桀也, 不如兩忘而化其道. 故善吾生者, 乃所以善吾死也.)" 라고 언급되어 있다. 장자는 유가에서 주장하는 인의니 도덕이니 하는 것으로 인간성을 다듬기보다는 대자연의 품속에서 적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자유로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실의 정치나 제도는 어떤 고정된 틀로써 모든 사람을 그 속에 넣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인정(仁政)을 베푼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성에 제약을 가할 뿐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개성과 창의력을 존중하여 간섭을 삼가면, 저절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장자」의 제6편 대종사(大宗師) 제14장에는 "물고기는 물에서 자라고 사람은 도에서 자란다. 물에서 자라는 물고기는 연못을 파주면 살 수 있고, 도에서 자라는 사람은 세상일을 버리므로 마음이 안정된다. 따라서 물고기는 강과 호수에서 서로를 잊고, 사람은 도의 세계에서 피아의 차별을 잊는다(魚相造乎水, 人相造乎道. 相造乎水者, 穿池而養給. 相造乎道者, 無事而生定. 故曰, 魚相忘乎江湖, 人相忘乎道術.)"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장에서 장자는 물고기와 사람은 넓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면, 자연스럽고 안정되며 차별화하지 않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자」의 제7편 응제왕(應帝王) 제5~7장에는 정(鄭)나라의 열자(列子)가 그의 스승인 호자(壺子)에게 신통하다는 무당 계함(季咸)을 소개하여 일어나는 일화가 기술되어 있다. "다음날 계함이 호자를 만나보고 열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선생은 상(相)이 변하고 있소. 그러니 나로서는 상을 볼 수가 없소. 상이 일정해지면 다시 상을 보리다.' 열자가 들어가 그 말을 호자에게 전했다. 호자가 말했다. '나는 아까 태충막승(太沖莫勝)의 상을 무당에게 보였다. 그는 아마 내게서 오묘한 조화를 보았으리라. 소용돌이치는 물도, 움직이지 않는 물도, 흐르는 물도 모여 연못을 이룬다. 그런데 연못에는 아홉 가지 상이 있다. 내 마음도 그와 같으니, 나는 이제 그에게 세 가지 상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시험 삼아 다시 데리고 오라. 다음 날 열자는 다시 무당을 데리고 호자를 만났다. 그런데 무당은 그 앞에 앉기도 전에 넋을 잃고 날아났다. 호자가 말했다. '좇아라.' 열자가 뒤좇아 갔으나 미치지 못하고 돌아와 호자에게 말했다. '이미 사라졌습니다. 뒤좇지 못했습니다.' 호자가 말했다. '아까 나는 도를 체득한 모습을 그에게 보여 주었다. 즉, 마음을 비운

채 현상의 변화를 따르며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흔들렸기 때문에 그는 내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달아날 수밖에 없겠지.' (明日, 又與之見壺子. 出而謂列子曰 子之先生不齊, 吾无得而相焉. 試齊, 且復相之. 列子入, 以告壺子. 壺子曰 吾鄉示之以太沖莫勝. 是殆見吾衡氣機也. 鯢桓之審爲淵, 止水之審爲淵, 流水之審爲淵. 淵有九名, 此處三焉. 嘗又與來. 明日, 又與之見壺子. 立未定, 自失而走. 壺子曰 追之, 列子追之不及. 反以報壺子曰, 已滅矣, 已失矣, 吾弗及已. 壺子曰 鄉吾示之以未始出吾宗. 吾與之虛而委蛇, 不知其誰何, 因以爲弟靡, 因以爲波流, 故逃也.)". 이들 장에서 지인은 무차별한 도의 경지에 들어섰기 때문에 사생존망(死生存亡)이나 길흉화복(吉凶禍福)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는 이미 주술(呪術)과 점복(占卜) 그리고 운명론마저 초월한 것이다(김, 1999).

장자는 노자의 겸허와 열자의 청정의 상징으로 칭송한 물의 철학적 의미를 포괄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장자는 인간세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처세(處世)하라고 권장하였다. 물러남은 도피가 아니라 더 넓고 큰 자유를 찾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물을 보다 넓고 자유분방한 자연의 모습으로 설정하여 마음의 안정과 평화로움을 누리는 지인(至人)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 4. 유가(儒家)에서의 물의 이용과 철학

공자(孔子)는 유가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으며「논어(論語)」1~20편에는 공자의 말과 그의 제자들 간에 이루어진 대화가 수록되어 있다. 논어의 공야장(公冶長)편 제 6장에 공자가 답답한 마음으로 세속을 등지고 바다 어딘가에 가서 은거하려 생각하여 "도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뗏목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려는데, 나를 따라올 사람은 아마도 유(由, 子路)일 것이다(子曰 道不行, 乘桴浮于海. 從我者其由與.)" 라고 말했다. 공자는 당시의 혼란하고 어려운 정세를 떠나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 물이 많이 모인 넓은 바다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논어」옹야(雍也)편 제9장에는 공자가 제자 안회(顔回)를 칭찬하면서 "어질다. 안회여! 한 대그릇의 밥을 먹고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고서 누추한 거리에서 사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으니 어질다. 안회여!(子曰 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飮,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 回也.)" 라고 언급하였다. 공자는 밥과 물을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강조한 듯하다. 안회는 곤궁한 생활을 즐기면서 어질고 학문을 좋아하며 공자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실천하였다고 전해진다(대유학당, 2013).

「논어」옹야(雍也)편 제21장에는 공자가 물과 사람의 관계를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動的)이고 어진 사람은 정적(靜的)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즐기고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라고 요약하였다. 이 장에서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동적이며 삶을 즐긴다는 것으로 어진 사람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논어」옹야(雍也)편 제24장에는 공자의 제자 "재아(宰我)가 '어진 사람은 누군가가 우물에 빠지면 우물로 따라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공자는 어찌 그러겠는가? 군자는 우물까지 가도록 할 수는 있지만, 빠지도록 할 수는 없으며, 그럴듯하게 속일 수는 있으나 엉터리로 속이지 못하는 것이다(宰我問曰 仁者, 雖告之曰 井有仁焉. 其從之也? 子曰 何爲其然也? 君子可逝也, 不可陷也 可欺也, 不可罔也.)" 라고 말하였다. 공자는 사람이 곤궁에 처해 있을 때에도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논어」술이(述而)편 제15장에서 공자는 "거친 밥을 먹으며, 물마시고 팔을 굽혀 베게를 삼을지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의로움이 있으면서 부유하고 귀한 것은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子曰 飯疏食飮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라고 말했다. 이는 공자가 밥과 물을 기본으로 소박하게 음식을 먹으면서도 만족하고 내면의 즐거움을 향유하며 부귀를 부러워하지 않는 의연함을 칭송한 것으로 판단된다.

「논어」자한(子罕)편 제16장에서는 공자가 강가에서 강물을 보며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을 그치지 않는구나!(子在川上, 曰 逝者如斯夫 不舍晝夜.)" 라고 말하였다. 이는 물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사람도

노력해야 스스로 강해지고 천지운행에 동행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공자는 물의 활동성과 점진성은 군자의 수양과 유사함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모로하시, 2001). 이것은 도(道)가 전승되고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잠시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알란(1999)은 이 부분을 원천으로부터 흐르는 물은 계속해서 끝없이 흐른다. 이것은 마치 세대를 전해 내려가는 명성과 같고, 형이상학적 표현으로는 시간 자체의 흐름과 같다고 해석하였다.

「논어」 위령공(衛靈公)편 제34장에서 공자는 "백성들에게 인(仁)이 필요한 것은 물과 불보다도 더하니, 물과 불은 내가 밟다가 죽는 자를 보았지만, 인을 실천하다가 죽는 자는 내가 보지 못하였다(子曰 民之於仁也, 甚於水火. 水火, 吾見蹈而死者矣, 未見蹈仁而死者也.)" 라고 언급하였다. 이 장에서 공자는 사람에게 어짐(仁)이라는 덕목은 물이나 불과 같이 사람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며, 어진 행동을 하다가 죽는 경우는 없으니 꾸준히 인을 실천하라고 독려하는 것이다.

「논어」 계씨(季氏)편 제11장에서 공자는 "선을 보고는 미치지 못할 듯이 안타까워하고, 악을 보고는 끓는 물을 더듬는 것처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을 보았고 그런 말을 들었다(孔子曰 見善如不及, 見不善如探湯. 吾見其人矣, 吾聞其語矣.)" 라고 말하였다. 공자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악을 끓는 물처럼 위험하므로 주의 깊게 경계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공자는 물이 생명의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선함과 같이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악함은 끓는 물처럼 위험하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물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힘이 있으며, 유유히 쉬지 않고 흐르듯이 사람들도 인의(仁義)의 덕(德)을 계속하여 실천할 것을 권장하였다.

맹자(孟子)와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모은 것으로 알려진 『맹자(孟子)』는 각 편의 첫머리 글자를 제목으로 삼아, 양혜왕(梁惠王), 공손추(公孫丑), 등문공(騰文公), 이루(離婁), 만장(萬章), 고자(告子), 진심(盡心) 등 7편이며 각 편은 상, 하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맹자』 양혜왕(梁惠王) 상편 제 6장에서 맹자는 양혜왕에게 "지금 천하의 임금이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지 않는 자가 없으니, 만일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천하의 백성들이 목을 빼고 바랄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으면 백성들이 그 임금에게 돌아오기를 물이 아래로 나아감과 같이 할 것이니, 콸콸 흘러가는 기세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今夫天下之人牧, 未有不嗜殺人者也, 如有不嗜殺人者, 則天下之民, 皆引領而望之矣, 誠如是也, 民歸之, 由水之就下, 沛然誰能禦之.)" 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에 백성들이 어질고 평화롭게 살고자 갈망하는 마음을 물의 거침없는 흐름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대유학당, 2009).

『맹자』 양혜왕 하편 제4장에는 맹자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많은 군사가 가며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굶주린 백성이 먹지 못하고, 수고하는 자가 쉬지 못하며, 곁눈질하면서도 서로 비난하여 마침내 백성들이 원망하고 미워하는데도 명령을 거스르고 백성들을 학대하여 술 마시고 음식 먹기를 물 쓰듯이 낭비하여 유련황망하게 놀아서 제후의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今也不然, 師行而糧食, 飢者弗食, 勞者弗息, 睊睊胥讒, 民乃作慝, 方命虐民, 飲食若流, 流連荒亡, 爲諸侯憂.)" 라고 말하였다. 이는 백성들은 굶주리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일부 힘 있는 자들은 호의호식하는 행태를 맹자가 비난하며 왕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맹자』 공손추(公孫丑) 상편 제6장에서 "사단(四端)이 나에게 있는 것을 다 넓혀서 채울 줄 알면,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며 샘물이 처음 나오는 것과 같을 것이니, 만일 이것을 채울 수 있다면, 충분히 세상을 보전할 수 있고, 만일 채우지 못한다면, 부모도 섬길 수 없을 것이다(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苟不充之, 不足以事父母.)" 라고 언급하였다. 맹자는 사람이 사단(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을 충만하게 한다면, 불의 따스한 열정과 샘물처럼 신선하고 깨끗하게 지속적으로 세상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맹자』 등문공(滕文公) 상편 제4장에는 "요(堯)임금 시대에 천하가 아직도 평정되지 못해서, 홍수가 멋대로 흘러 천하에 범람하여, 초록이 번창하고 무성하여 금수가 번식하였다. 오곡이 성숙하지 못하며 금수가 사람을

핍박하여, 짐승의 발자국과 새 발자국의 흔적이 중국에 교차하자, 요임금이 홀로 이를 걱정하여 순(舜)을 등용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순임금이 익(益)으로 하여금 불을 맡게 하였는데, 익이 산과 택지에 불을 질러 태우자, 금수가 도망하여 숨었다. 우(禹)가 아홉 하천을 소통시키고 제수(濟水)와 탑수(漯水)를 소통하게 하여 바다로 주입시키며, 여수(汝水)와 한수(漢水)를 트고 회수(淮水)와 사수(泗水)를 배수(排水)하여 강으로 주입시키니, 그런 뒤에 중국에서 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 이 시기에 우가 8년 동안 밖에 있으면서 세 번이나 자기 집의 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비록 밭갈고자 하나 할 수 있었겠는가?(當堯之時, 天下猶未平, 洪水橫流, 氾濫於天下. 草木暢茂, 禽獸繁殖, 五穀不登, 禽獸偪人. 獸蹄鳥跡之道, 交於中國. 堯獨憂之, 舉舜而敷治焉. 舜使益掌火, 益烈山澤而焚之, 禽獸逃匿. 禹疏九河, 瀹濟漯, 而注諸海, 決汝漢, 排淮泗, 而注之江, 然後中國可得而食. 當是時也, 禹八年於外, 三過其門而不入, 雖欲耕, 得乎.)" 라고 기술되어 있다. 위와 유사한 내용이 등문공 하편 제9장에도 언급되어 있다. 중국은 요, 순 시대부터 물의 관리가 국가의 운영과 백성들의 생존 및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였다, 이 임무를 맡아 홍수를 다스리느라 8년간을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분투한 우의 충실한 모습이 감동적이라 하겠다. 우는 물의 성질에 순응하며 책임을 다하여 치수(治水)에 성공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런 공로로 우는 순임금으로부터 왕의 자리를 선양(禪讓)받아 하(夏)나라(2,070-1,600 BC)의 시조가 되었다고 전해진다(장, 2017).

『맹자』 이루(離婁) 상편 제 1장에는 "그러므로 높이 오르려면 반드시 구릉을 따라서 오르고, 아래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내와 연못을 따라 간다고 하는 것이니, 정치를 하면서 선왕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故曰, 爲高必因丘陵, 爲下必因川澤. 爲政不因先王之道, 可謂智乎.)" 라고 서술되어 있다. 맹자는 정치를 하려면, 순리를 따라 선왕의 도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언덕과 물을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맹자』 이루(離婁) 상편 제9장에는 "백성들이 인(仁)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고 짐승이 들로 달아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연못으로 물고기를 몰아주는 것은 수달이고, 숲으로 새를 몰아주는 것은 새매이며,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을 위하여 백성을 몰아준 것은 걸(桀)과 주(紂)였다. 이제 천하의 임금 가운데 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후들이 모두 그를 위하여 백성들을 몰아줄 것이니, 비록 왕되기를 바라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民之歸仁也, 猶水之就下、獸之走壙也. 故爲淵敺魚者, 獺也, 爲叢敺爵者, 鸇也, 爲湯武敺民者, 桀與紂也今天下之君有好仁者, 則諸侯皆爲之敺矣. 雖欲無王, 不可得已.)"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장에서 맹자는 왕이 어진 정치를 하는 것은 물의 흐름과 같이 자연에 순응하며 인을 좋아하여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맹자』 이루(離婁) 상편 제17장에는 남녀 간의 예의에 관한 대화중에 '형수가 물에 빠졌을 경우, 손으로 구원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맹자는 "형수가 물에 빠졌을 경우, 손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늑대나 이리와 같다. 남녀가 직접 주고받지 않는 것은 예의이며,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구하는 것은 올바른 법도이다(嫂溺則援之以手乎曰 嫂溺不援, 是豺狼也. 男女授受不親, 禮也, 嫂溺援之以手者, 權也.)" 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맹자가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남녀 간이라도 손을 잡아 구해주는 것이 도리임을 말하는 것이다.

『맹자』 이루(離婁) 하편 제18장에는 맹자의 제자인 서자(徐子)가 스승에게 '공자께서는 자주 물을 칭송하여 물이여! 물이여! 하고 말하셨으니 어째서 물을 높이 산 것입니까?(徐子曰 仲尼亟稱於水, 曰 水哉, 水哉, 何取於水也)' 라고 물으니 맹자가 대답하였다. "근원이 있는 샘물이 용솟음쳐서 밤낮을 그치지 않아서 구덩이를 채운 뒤 사해에 이르니, 근원이 있는 것은 이와 같기 때문에 높이 사신 것이다. 진실로 근원이 없다면, 칠팔월 사이에 비가 한꺼번에 모여 개천과 도랑이 모두 가득차지만, 그것이 마르는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다. 따라서 명성이 실상보다 지나친 것을 군자는 부끄러워한다(孟子曰 原泉混混, 不舍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 有本者如是, 是之取爾 苟爲無本, 七八月之間雨集, 溝澮皆盈, 其涸也, 可立而待也. 故聲聞過情, 君子恥之.)". 맹자는 물은 근원이 있을 때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부질없이 명예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있다. 사실과 어긋나는 명예나 명성은 근원 없는 빗물과 같아서 곧 그 바닥이 드러나고 만다는 것이다.

『맹자』 이루(離婁) 하편 제26장에는 “우임금이 물길을 다스린 것은 억지로 일삼은 바가 없는 것이니, 만일 지혜로운 사람이 자연스런 방법으로 행동한다면, 그 지혜가 위대하게 될 것이다. 하늘이 높이 있고, 별들이 멀리 있지만, 진실로 이미 그러한 까닭을 찾는다면, 천년 후의 동짓날도 알 수 있을 것이다(禹之行水也, 行其所無事也. 如智者亦行其所無事, 則智亦大矣. 天之高也, 星辰之遠也, 苟求其故, 千歲之日至, 可坐而致也.)” 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장에서 맹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의 이치를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맹자』 이루(離婁) 하편 제29장에는 하나라의 시조인 우(禹)와 직(稷)이 치세를 만나 세 번 자기 집 문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으셨으니, 공자께서 현명하다고 생각하셨다. 안자가 난세(亂世)를 만나 누추한 골목에 살면서 한 대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마실 것으로 지내기를,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는데 안자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으니, 공자께서 현명하다고 생각하셨다. 맹자가 말하였다. 우와 직과 안회는 그 도(道)가 같다(禹、稷當平世, 三過其門而不入, 孔子賢之. 事見前篇. 顔子當亂世, 居於陋巷. 一簞食, 一瓢飮. 人不堪其憂, 顔子不改其樂, 孔子賢之. 孟子曰 禹、稷、顔回同道.)“ 라고 기술되어 있다. 맹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도는 언제나 어느 때나 그 환경이 바뀌어도 실정에 맞게 잘 행해져야 훌륭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맹자』 고자(告子) 상편 제2장에는 전국시대의 제나라 사상가인 고자와 맹자 간에 인성(人性)에 대한 토론이 서술되어 있다. “고자가 말하였다. 사람의 성품은 여울물과 같다. 동쪽으로 틀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틀면 서쪽으로 흐르니, 인성이 선(善)과 불선(不善)이 없는 것은 물이 동쪽과 서쪽의 분별이 없는 것과 같다. ‘맹자가 말하였다. 물은 참으로 동서의 분별이 없지만, 상하의 분별이 없겠는가? 인성이 착함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으니 사람이 착하지 않은 이가 없으며,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는 것이 없다. 이제 물을 쳐서 튀게 하면 물은 이마를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며, 격동하게 행하면 물이 산에도 있게 할 수 있으나 이 어찌 물의 성품이겠는가? 그 형세가 곧 그렇게 한 것이니, 사람을 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도 그 성품이 또한 이와 같은 형세로 영향을 받게 한 것이다’(告子曰, 性猶湍水也, 決諸東方則東流, 袂諸西方則西流. 人性之無分於善不善也, 猶水之無分於東西也. 孟子曰, 水信無分於東西. 無分於上下乎,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 今夫水, 搏而躍之, 可使過顙, 激而行之, 可使在山. 是豈水之性哉, 其勢則然. 人之可使爲不善, 其性亦猶是也.)”. 이 토론은 인성을 물의 성질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는데 고자는 사람의 본성은 교육하는데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맹자는 인성은 본래 착하다는 성선설을 물의 품성에 비유하여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맹자』 고자(告子) 상편 제18장에는 “맹자가 말하였다. 인이 인하지 않음을 이기는 것은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같다. 그러니 지금의 인한 자는 한 잔의 물로써 한 수레의 나무에 붙은 불을 끄는 것과 같다. 불이 꺼지지 않으면 이르기를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니, 이 또한 인하지 않음을 심하게 편드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마침내 망할 따름이다(孟子曰, 仁之勝不仁也, 猶水勝火. 今之爲仁者, 猶以一杯水, 救一車薪之火也, 不熄, 則謂之水不勝火, 此又與於不仁之甚者. 亦終必亡而已矣.)” 라고 언급되었다. 이는 충분한 물이 불을 끌 수 있듯이 충분히 어진 사람은 흥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은 망한다는 조언이라고 생각된다.

『맹자』 고자(告子) 하편 제11장에는 주(周)나라 사람인 ‘백규(白圭)가 말하였다. ’제가 물을 다스린 것이 우보다 낫습니다.‘ 맹자가 말하였다. “자네가 지나치도다. 우가 물을 다스리신 것은 물의 기를 따르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는 네 바다로 골짜기를 삼으신 것인데, 지금 자네는 이웃 나라로 골짜기를 삼는 것이다. 물이 거슬려 가는 것을 강수라 이르니, 강수는 홍수이다. 이는 인한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니, 자네가 지나친 것이다(白圭曰 丹之治水也愈於, 孟子曰 子過矣. 禹之治水, 水之道也, 是故禹以四海爲壑, 今吾子以鄰國爲壑. 水逆行, 謂之洚水. 洚水者, 洪水也, 仁人之所惡也 吾子過矣.)”. 이 장에서 맹자는 장마를 다스리는 일도 정치를 하는 경우에도 모두 이웃 나라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는 것이다.

『맹자』 진심(盡心) 상편 제13장에는 “맹자가 말하였다.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은 기뻐하는 듯하고, 왕자의 백성은 담담한 듯하다. 왕자의 백성은 죽어도 원망하지 않으며, 이롭게 해 주어도 공으로 여기지 않으므

로, 백성이 날로 착한 데로 옮기면서도 그렇게 시키는 자를 알지 못한다. 대저 군자가 지나가는 곳은 교화되며, 머물러 있는 곳은 신묘하게 되기 때문에,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천지와 더불어 하나 되어 흐르니, 어찌 조금 돕는다고 말하겠는가?(孟子曰 霸者之民, 驩虞如也 王者之民, 皞皞如也 殺之而不怨, 利之而不庸, 民日遷善而不知爲之者, 夫君子所過者化, 所存者神, 上下與天地同流, 豈曰小補之哉.)"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장에서 맹자는 나라를 덕으로 올바르게 다스리는 임금의 교화가 백성에게 함께 흐르니 위대하다는 것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맹자』 진심(盡心) 상편 제16장에는 "맹자가 말하기를 순이 깊은 산 가운데 거처함에 나무와 풀과 함께 있었고, 사슴과 돼지로 더불어 노니, 그 깊은 산의 들사람과 다를 바가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한마디 착한 말을 들으며 한 가지 착한 행실을 봄에 미쳐서는 그것을 실천했는데, 마치 강물이 막혔다가 터지는 것처럼 기세가 대단해서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었다(孟子曰 舜之居深山之中, 與木石居, 與鹿豕遊, 其所以異於深山之野人者幾. 及其聞一善言, 見一善行, 若決江河, 沛然莫之能禦也.)" 라고 서술되어 있다. 유가에서 숭상하는 순이 왕위에 오르기 전, 산속에 살면서도 착한 말과 행실을 적극적으로 힘차게 실천한 모습을 막힌 강물이 터져 흐르는 모습에 비유한 것이다.

『맹자』 진심(盡心) 상편 제23장에는 "맹자가 말하였다. 농사를 잘 짓게 농토를 다스리며 세금을 조금 거두면 백성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 백성들이 먹기를 때에 맞게 하며 쓰기를 예로써 하면 재물을 다 쓰지 못한다. 백성들은 물과 불이 아니면 생활하지 못하지만, 밤에 문을 두드려서 물과 불을 구함에 주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은 물과 불이 지극히 풍족하기 때문이다. 성인이 천하를 다스림에 콩이나 곡식 등을 물과 불 같이 쓰면 백성들이 어찌 인(仁)하지 않겠는가?(孟子曰 易其田疇, 薄其稅斂, 民可使富也. 食之以時, 用之以禮, 財不可勝用也. 民非水火不生活, 昏暮叩人之門戶, 求水火, 無弗與者, 至足矣. 聖人治天下, 使有菽粟如水火. 菽粟如水火, 而民焉有不仁者乎.)" 라고 언급되어 있다. 맹자는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적게 걷고 물, 불, 식량 등을 충족시켜서 성품이 어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맹자』 진심(盡心) 상편 제24장에는 "맹자가 말하였다. 물을 보는 데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큰 물결을 보아야 한다. 해와 달에 밝음이 있으니, 빛을 용납하는 곳은 반드시 비춘다. 흐르는 물의 속성은 웅덩이를 채우지 못하면 나아가지 못하니, 군자가 도에 뜻을 두더라도 문채를 이루지 못하면 통달하지 못한다(孟子曰 觀水有術, 必觀其瀾. 日月有明, 容光必照焉. 流水之爲物也, 不盈科不行, 君子之志於道也, 不成章不達.)". 라고 기술되어 있다. 맹자는 이 장에서 군자는 모든 일의 특성을 파악하고 빈틈없이 철저히 목표를 향하여 샘물처럼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맹자』 진심(盡心) 상편 제27장에는 "맹자가 말하였다. 굶주린 사람은 달게 먹고 목마른 사람은 달게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음식의 바른 맛을 알지 못한 것으로, 주리고 목마른 것이 입맛을 해친 것이다. 어찌 오직 입과 배에만 주리고 목마름의 해침이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에도 또한 그 해침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주리고 목마름의 해로써 마음의 해를 삼지 않는다면, 부귀영화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을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孟子曰 飢者甘食, 渴者甘飮, 是未得飮食之正也, 飢渴害之也. 豈惟口腹有飢渴之害, 人心亦皆有害. 人能無以飢渴之害爲心害, 則不及人不爲憂矣.)". 라고 서술되어 있다. 가난과 굶주림은 사람의 마음도 그르치기 쉽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맹자는 굶주리고 목마르면서도 자기의 뜻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군자에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맹자』 진심(盡心) 하편 제14장에는 "맹자가 말하였다. 백성이 귀하고 나라는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운 존재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천자가 되고, 천자에게 얻은 사람은 제후가 되며, 제후에게 얻은 사람은 대부가 된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봉한다. 희생이 이미 이루어지며 곡식으로 된 제사 음식이 이미 깨끗하게 되어 제사를 때에 맞추어 받드는데도 가물어서 마르며 홍수가 나서 넘치면, 사직(임금이 제사지내는 곳, 또는 나라)은 다른 장소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이다(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是故得乎丘民而爲天子, 得乎天子爲諸侯, 得乎諸侯爲大夫 諸侯危社稷, 則變置 犧牲旣成, 粢盛旣

潔, 祭祀以時, 然而旱乾水溢, 則變置社稷.)" 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 장에서 맹자는 백성이 가장 존귀하고, 나라는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운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나라의 형식적인 틀이 잡혀 있어 제사 준비가 되고 있더라도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 백성들의 삶의 여건이 나빠지면 사직(나라) 도 바꿀 수 있다는 비유인 듯하다. 맹자의 이 이론은 과격하여 예전부터 논의가 분분했고 왕들에게 위험시 되어왔다. 그러나 임금 또는 정권도 백성들이 바꾸거나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사상은 현대에 와서 많은 공감을 얻는 민본주의(民本主義)라고 할 수 있다(김, 2013).

순자(荀子)의 말과 글을 모은 「순자(荀子)」는 총 3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자는 제1, 권학(勸學)편에서 "흙이 쌓여 산이 되면 바람과 비가 일고, 물이 모여 연못이 되면 교룡과 용이 생겨나듯이 선함이 쌓여 덕이 되면 자연히 신명함을 얻게 되고 성스러운 마음이 갖추어 지게 된다(積土成山, 風雨興焉, 積水成淵, 蛟龍生焉, 積善成德, 而神明自得, 聖心備焉.)" 라고 서술하였다. 이는 흙이 모여 산이 되고 물이 모여 연못이 되면 생명체가 서식하는 것처럼 선함이 모여 덕과 신명이 생기며 성스럽게 될 수 있으니 선행을 열심히 추구하라는 격려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순자」의 제1, 권학(勸學)편에는 또한 "군자(君子)는 이르기를 '학문이란 그칠 수 없는 것이다' 한다. 푸른 물감은 쪽 풀에서 취한 것이로되 쪽 풀보다 더욱 푸르고, 얼음은 물이 변한 것이지만 물보다 더욱 차갑다. 나무의 곧음이 먹줄에 들어맞더라도, 휘어서 수레바퀴를 만들면 그 굽음이 그림쇠에 들어맞으며, 비록 말라붙고 쬐이더라도 되돌아가지 않는 것은 휘어서 맞추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쇠는 숫돌에 갈면 날카로워 지며, 군자는 널리 배우고 날마다 세 번씩 생각(복습)하면, 지식은 넓어지고, 행동하는데 허물이 없게 된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하늘이 높은 것을 알지 못하고, 깊은 계곡에 가까이 가보지 않으면 땅이 두터운 것을 알지 못하며, 옛 성군들이 남긴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학문의 위대함을 알지 못한다(君子曰 學不可以已. 靑取之於藍, 而靑於藍, 冰水爲之, 而寒於水. 木直中繩, 輮以爲輪, 其曲中規, 雖有槁暴, 不復挺者, 輮使之然也. 故木受繩則直, 金就礪則利, 君子博學而日參省乎己, 則智明而行無過矣. 不登高山, 不知天之高也. 不臨深谿, 不知地之厚也. 不聞先王之遺言, 不知學問之大也.)"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장에서 순자는 학문을 열심히 하면 스승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되어(청출어람; 靑出於藍)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니, 옛 어른들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꾸준히 정진하라는 독려의 말을 한 것이라 하겠다(임, 2015).

「순자」의 제2, 수신(修身)편에는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이 났다고 해서 농사를 그만두지 않고, 훌륭한 상인은 손해를 본다고 시장을 떠나지 않으며, 선비와 군자는 궁핍하다고 해서 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故良農不爲水旱不耕, 良賈不爲折閱不市, 士君子不爲貧窮怠乎道.)" 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편에서는 모든 전문가들은 어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시종일관 자기들의 일을 부지런히 하여 차후에 좋은 결과를 대비하며 정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순자」의 제4, 영욕(榮辱)편에는 "두레박줄이 짧으면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없고, 지혜가 모자라면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다(短綆不可以汲深井之泉, 知不幾者不可與及聖人之言.)" 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장에서 순자는 물을 길어 올리려면, 충분한 길이의 두레박줄이 필요하듯이 공부도 넓고 깊이 해야 성인들과 소통하며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니, 평소에 학문에 전념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둥, 2012).

「순자」의 제8, 유효(儒效)편에는 "흙이 쌓이면 산이 되고, 물이 모이면 바다가 되며, 아침저녁이 쌓이면 한 해가 된다. 성인(聖人)은 사람이 노력을 쌓아 되는 것이다(故積土而爲山, 積水而爲海, 旦暮積謂之歲, 至高謂之天, 至下謂之地, 聖人也者, 人之所積也.)"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장에서 순자는 산, 바다, 연륜 등이 적은 것이 계속하여 많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인도 사람이 조그마한 노력과 공부의 실천을 끊임없이 수행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격려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순자」의 제9, 왕제(王制)편에는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강물이 배를 뒤집기도 한다. 임금은 위태로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생각해서 백성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잘 다스려 위기를 예방해야 한다(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

覆舟. 君以此思危 則危將焉而不至矣.)" 라고 언급되어 있다. 순자는 맹자와 같이 임금이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거나 정치에 나태하면, 백성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추방될 위기도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임, 2015).

「순자」의 제12, 군도(君道)편에는 "임금이란 백성의 근원이다. 근원이 맑으면 지류도 맑고, 근원이 흐리면 지류도 탁해진다(君者, 民之原也, 原清則流清, 原濁則流濁.)" 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장에서 순자는 임금이 모범적으로 청렴결백해야 백성들도 따라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살아간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금언이라고 할 수 있다.

「순자」의 제14, 치사(致士)편에는 "강물과 연못이 깊으면 물고기와 자라가 돌아오고, 산림이 무성하면 새와 짐승이 돌아온다. 올바른 정치가 행해지면, 백성들이 돌아온다(川淵深而魚鱉歸之, 山林茂而禽獸歸之, 刑政平而百姓歸之.)"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장에서 순자는 물이 충분히 깊고 살기 좋으면 물고기들이 돌아오듯이 나라가 올바로 다스려지면 백성들도 돌아오므로 통치자들은 어진 정치(仁政)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임, 2015).

「순자」의 제14, 치사(致士)편에는 또한 "냇물과 연못이 마르면 용과 물고기가 떠나고, 산과 숲이 험난하면 새와 짐승이 떠난다. 나라의 정치가 잘못되면 선비와 백성이 떠난다(川淵枯則龍魚去之, 山林險則鳥獸去之, 國家失政則士民去之.)" 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 장에서 순자는 앞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대조적으로 생명 환경과 정치가 잘못되면 생물들이 떠나며, 사람들도 나라를 등지고 떠나므로 위정자는 국가 경영의 근본인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잘하는 한편, 정치도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순자」의 제28, 유좌(宥坐)편에 공자와 그의 제자 자공(子貢)이 강가에서 나눈 대화가 서술되어 있다. 자공이 골똘히 물을 바라보는 공자에게 무슨 까닭으로 물을 관조하는지 물었다. 공자는 물의 장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물은 여러 생명에게 두루 도움을 주지만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으니 덕(德)과 닮았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물길이 꾸불꾸불하더라도 반드시 지리를 따르니 의(義)와 닮았다. 물은 콸콸 솟아나며 끝이 없으니 도(道)를 닮았고, 물길을 터주면 메아리 소리처럼 재빨리 흘러가고 백 길의 골짜기를 아무런 도움 없이 떨어지니 용(勇)과 같다. 물은 파인 곳을 가더라도 반드시 평평해지니 법(法)과 닮았고, 물은 한곳을 가득 채우더라도 고르게 할 일이 없으니 정(正)과 같다. 물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고 미미한 곳까지 두루 미치니 찰(察)을 닮았고, 물은 같은 곳을 들고 나며 스스로 맑고 깨끗해지니 좋은 선화(善化)와 유사하다. 중국의 경우 강이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반드시 동쪽으로 나아가니 지(志)와 닮았다. 그래서 군자는 큰 강을 바라보며 그 특성을 세심히 관찰하는 것이다(夫水, 大徧與諸生而無爲也. 似德. 其流也, 埤下裾拘, 必循其理. 似義. 其洸洸乎 不漚盡, 似道. 若有決行之, 其應佚若聲響, 其赴百仞之谷不懼, 似勇. 主量必平, 似法. 盈不求概, 似正. 淖約微達, 似察. 以出以入, 以就鮮絜, 似善化. 其萬折也必東, 似志. 是故君子見大水必觀焉.)". 공자가 역설한 물의 아홉 가지 훌륭한 점은 덕, 의, 도, 용, 법, 정, 찰, 선화, 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자는 이들을 높이 평가하고 군자로서 현장에서 물을 관찰하고 사유하여 인격 연마에 귀감으로 삼도록 권장한 것으로 보인다(신, 2014). 군자가 물을 지식의 원천으로 보고 탐구하는 이유는 그가 열망하는 모든 원리들이 물의 여러 종류의 형태 속에 사실화되기 때문이다(알란, 1999). 공자는 군자가 추구하는 많은 원리가 물 속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자가 칭송한 물의 아홉 가지 본받을 장점들(九德)은 도가의 노자가 칭송한 내용들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도와 덕을 포함하는 좋은 덕목들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순자는 물의 자연적 품성과 같이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살아야 하며 그릇된 행동을 한다면, 풍파를 만난 배처럼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순자는 특히 나라의 임금을 비롯한 고위층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어진 정치를 펴지 않으면, 나라가 전복되거나 망할 수도 있다고 조언하였다.

## 5. 도가(道家)와 유가(儒家)에서의 물의 이용과 철학 비교 : 공통점과 차이점

도가에서는 노자의 「도덕경」에 서술된 바와 같이 계곡을 칭송하고 그 계곡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을 그 이

상으로 공경하고 찬미하여 왔다. 물은 모든 생물들의 발생과 생존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자연계를 순환하고 있는 신비로운 물질이다. 물은 부드럽고 약하며 다른 것들과 공적(功績)을 다투는 일을 하지 않는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융통성이 있고 아무런 고집도 부리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는다. 물은 약한 듯하지만, 돌, 바위 등 강한 것들을 뚫을 수 있고 철 같은 금속도 녹일 수 있다. 물은 또한 거대한 배를 띄워서 멀리까지 운반하는 힘도 있다. 물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허한 존재로 양보하고 만물을 포용한다. 그러므로 도가에서는 "으뜸가는 선(善)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며 싸우지 않는다." 라고 물을 칭송한다. 도가에서는 강과 바다가 낮은 곳에 위치하므로 모든 계곡의 물이 흘러들어오니 내와 골짜기의 왕이 된다고 한다. 물은 또한 큰 나라의 횡포를 경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큰 나라는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기꺼이 아래에 있어야 하며, 작은 나라를 섬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열자는 「열자」에서 큰 물고기가 깊고 넓은 물에서 살듯이, 심성이 깊고 큰 인물은 넓고 큰 곳에서 자라고 많은 체험을 하며 살면서 교류해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장자의 「장자」에서는 물의 물리적인 특성과 철학적 의미에 관하여는 상세히 언급되지 않으나, 범위를 확장하여 물이 대자연의 일부로서 자유분방한 마음의 안정과 평화로움을 누리는 지인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배경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도가에서는 물은 모든 것에 생명력을 주면서 물의 성질을 최상의 선으로 파악하고 물처럼 되도록 수양하고 도에 이르기를 권면한다. 도가에서는 대자연에서 조화를 이루고 평안을 영위하는 무위(無爲)의 도법자연(道法自然) 또는 무위자연(無爲自然) 철학을 상징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위자연이란 억지로 하지 않는 행동, 자연스러운 삶, 자연과 친화하고 문명을 비판하며,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게 삶을 구가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김 등, 2014).

한편, 유가에서는 인간의 생존에 물의 중요성과 정서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공자가 강가에서 흐르는 물을 보고 천지자연의 만물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생성되고 물같이 흐르니 이를 본받아서 스스로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자가 물을 찬미한 또 다른 이유는 근원이 풍부한 샘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을 거울삼아 사람들도 근원이 풍부해지도록 공부하고 수양해야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은 또한 항상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흐르므로 순리를 뛰어넘는 폐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은 웅덩이를 메우고 꽉 찬 다음에 다시 앞으로 흘러가는 질서를 유지한다. 맹자는 물이 빈 곳을 채우고 흐르는 것처럼 군자는 모든 일에 빈틈없이 철저히 목표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왕도정치(王道政治)도 물의 순리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홍, 2017). 순자는 물의 자연적 품성과 같이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살아야 하며 특히 나라의 통치자가 그릇된 행동을 한다면, 풍파를 만난 배처럼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유가에서는 물의 근원성, 활동성, 점진성 등을 포함한, 덕망, 의리, 도리, 용기, 모범, 정의, 통찰, 선화, 의지 등이 군자의 수양에서 필요한 덕목으로 삼아 따르기를 권장하였다. 물은 불과 함께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물질인 것처럼, 유가에서는 인(仁, 어짐)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삶의 덕목이므로 임금도 백성들도 실천하기를 조언하였다. 물은 평소와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백성들이 생활과 농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다. 유가에서는 또한 요, 순 시대에 성공적으로 실행해졌던 치수(治水)를 예를 들어 권면하였다. 우기에는 장마와 홍수에 대비하여 수로(水路)를 확보하고 배수(排水)를 철저히 해야 백성들이 수재(水災)를 면하고, 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편안히 살수 있다는 현실에 부응하는 철학과 민생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은 인간의 위대한 스승이며 자연의 놀라운 철학자이다. 물은 우리에게 심오한 지혜를 가르친다. 우리는 물을 배우고 물처럼 살아야 한다(안, 1992).

## Ⅲ. 결 론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부터 도가와 유가는 각각 노자와 공자를 중심으로 철학적 체제를 갖추어 발전하여왔다. 두 학파에 있어서 물의 이용과 철학적 측면에서 문헌들을 고찰한 내용을 비교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도가에서는 물의 자연적 특성을 인간의 심성에 비유하여 생명에 필수적이며 유약하게 보이지만, 강한 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도가에서는 물이 주위를 이롭게 하며 겸허히 낮은 곳으로 처하여 양보하고 다투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칭송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물의 좋은 점들을 배우고 닮아 도에 이르며 이웃과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도가에서는 물과 같이 사람들은 대자연에서 조화를 이루고 자연의 순리와 일치되기를 권장하였다. 도가에서는 물처럼 맑고 순수하게 텅 빈 마음(淸虛)의 상태를 유지하고, 무위(無爲)를 숭상하며, 자연스러운 품성을 지니고, 참된 도(道)를 추구하는 은자(隱者)의 삶을 권장하였다. 도가에서는 또한 욕심과 인위적인 구속됨이 없이 무위자연의 평안을 영위하는 덕(德)의 절대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철학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유가에서는 물의 생명체에 미치는 생리적 중요성과 정서적 의미를 부여하며 충만하고 지속적인 흐름에 공감하였다. 유가에서는 물의 좋은 점을 덕망, 의리, 도리, 용기, 모범, 정의, 통찰, 선화, 의지 등으로 표현하였다. 유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물의 깨끗하고 유연한 운치와 덕을 칭송하였다. 물은 근원이 샘솟을 때 끊임없이 흐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공부하고 자기 수양을 충분히 해야 지속적으로 군자다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유가에서는 물이나 불이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같이 인의예지(仁義禮智)도 인간의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주장하였다. 유가에서 큰물은 잘 다스리지 않으면, 범람으로 인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여 평소에도 배수가 잘 되도록 합리적으로 물을 관리하고 이용할 것을 충고하였다. 유가에서는 사람들이 사회 현실을 인정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신뢰하며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인 철학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우리는 도가에서 강조하는 물의 필수성, 선함, 부드러움, 겸양, 강인함, 자연과의 조화 등의 미덕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유가에서 주장하는 물의 도리, 용기, 모범, 정의, 통찰, 선화, 의지 등의 철학을 교훈으로 취할 수 있다. 이런 미덕과 철학을 생활과 정치에 반영하여 실천하며 물의 이용과 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한다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삶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권원기(2017). 노자가 꿈꾼 삶의 자세. 경기신문, 2017, 8, 20.

김교빈, 전호근, 김시천, 김경희(2014). 동양철학 산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pp.14-17.

김석환 역주(1999). 장자. 학영사, 파주, pp.17-207.

김영식 옮김(2010). 열어구(열자). 지식을만드는지식, 서울, pp.40-84, 236-276.

김학주 역주(2013). 맹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pp.695-729.

남만성 역주(2001). 노자 도덕경. 을유문화사, 서울, pp.25-211.

대유학당 역주(2009). 손에 잡히는 맹자. 대유학당, 서울, pp.7-12, 20-283.

대유학당 역주(2013). 손에 잡히는 논어. 대유학당, 서울, pp.62-223, 272.

둥팡숴 해설, 이선희 옮김(2012). 상쾌한 순자 현대인을 꾸짖다. 베이식북스, 서울, pp.55-60.

모로하시 데츠지, 심우성 역(2001). 공자, 노자, 석가. 도서출판 동아시아, 서울. pp.30-35.

박명규(2015). 춘추전국사. 웅진지식하우스, 파주, pp.308-311.

사마천 지음, 김원중 옮김(2015). 사기열전. 개정판. 민음사, 서울, pp.91-97.

신정근(2014). 세상의 모든 것이 배움의 터전일지니… 대수필관(大水必觀). 월간 공무원연금, pp.32-33.

안병욱(1992). 물의 덕을 배우자. 함께 사는 사회, 6월호, pp.18-19.

알란, 사라(1999).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오만종 옮김, 예문서원, 서울, pp.52-105.

이인경(2012).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와 물(水)의 연계성. 중국학보, ***65,*** 55-73.

임건순(2015). 순자. 절름발이 자라가 천 리를 간다. 시대의창, 서울, pp.275-300.

장철환(2017). 중국고대사. 북랩, 서울, pp.250-417.

정창영 옮김(2001). 열자(列子). 시공사, 서울, pp.7-9, 63-79, 204-297.

홍윤호(2010). 물의 과학과 미학. 전남대학교출판부, 광주, pp.5, 219.

홍윤호(2016). 논어에 언급된 공자(춘추)시대의 음식문화. 생활과학연구, ***26,*** 169-174.

홍윤호(2017). 맹자에 언급된 전국시대의 음식문화. 생활과학연구, ***27,*** 35-43.

Freke, Timothy(1995). ***Lao Tzu's Tao Te Ching.*** Judy Piatkurs Ltd. London. pp.7-24.